

광주 올 땅값 상승률 0.81% 전국 최저

충장로 광주우체국 m² 1010만원 최고
전남은 3.61% 상승 전국 평균 웃돌아

올해 광주의 땅 값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 미만의 상승률에 머물렀고, 전남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30일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년 대비 평균 0.81% 상승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전남은 지난해보다 3.61% 올랐다. 전국 평균은 3.41%였다.

광주시의 올해 공시대상 38만6000

필지의 지가가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일부 상승하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변동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가변동률은 남구(1.8%)가 가장 높고, 광산구(1.61%), 서구(0.27%), 북구(0.23%), 동구(0.06%) 순이다.

인상폭이 가장 낮은 동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재개발 저조가 원인으

로 분석됐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곳은 동구 충장로 94(광주우체국)로 m²당 101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자 지가는 광산구 사호동 산116로 m²당 602원이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2.28m²) 상승률이 가장 높고, 공업지역(2.19m²), 주거지역(0.45m²), 상업지역(-0.19%) 순이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3.61% 올라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개 대상 토지는 426만 필지로 상승이유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산업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광양이 7.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마산단 준공 등의 영향으로 영광이 7.4%, 공동혁신도시 건

설로 나주가 5.01% 상승했다.
인상폭이 가장 낮은 곳은 목포로 0.18%에 그쳤다. 신안군청 이전 등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1m²당 402만원인 여수 서교동 280~85번지 상업용 대지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가장싼 곳은 1m²당 98원인 완도 청산면 도도리 산4번지였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7월 1일까지 시군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감정평가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독도 땅값 1년새 90% 올라 23억원

독도 땅 값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90.3% 올랐다.

30일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독도 전체 땅 값은 23억8395만원으로 지난해의 12억5247만원보다 90.3%(11억3148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1필지 가운데 최고 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잠종지·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m²당 45만원이다.

최고 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m²당 950원이다.

독도 땅 값은 사회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활성화, 영유권 확보, 지하자원의 경제 가치 유망, 독도에 투입한 비용 등으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4%, 2012년 16.6% 등으로 상승하다 올해 대폭 올랐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광주사랑 기금 기탁

1차 조성분 1429만원

하이트진로(주)(전남권역 영업본부장 정재덕)은 지난 29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사랑기금 1차 조성된 성금 1429만6640원을 사회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하이트진로(주)는 정나눔 지역 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d

매주, 참여할 각 한병당 2원씩 기금을 출현해 조성된 목표액 3억 원 달성을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임직원들은 자발적 참여로 광주사랑기금 조성, 하이트진로(주) 정나눔 봉사단 운영, 광주천 가꾸기 사업 참여, 독거노인 집안돌보기, 지역사랑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오늘 광주 평동산단 방문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

들과 함께 지역 수출 강소기업인 무진서비스(대표 최은모)를 방문, 수출 성공이야기를 듣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회장은 이날 광주 평동공단 금형산업진흥회에서 지역 금형·기계·자동차부품 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수·

“취득세 감면 추가연장 어렵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중대형 주택 대책 없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4·1대책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집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는 주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4·1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감면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기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 수출 강소기업인 무진서비스(대표 최은모)를 방문, 수출 성공이야기를 듣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월드 비즈 클럽’ 창립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상봉)는 30일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에서 광주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광주 World Biz Club’를 결성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4월 광공업 생산 광주 늘고 전남 줄어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

4월 중 광주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많이 늘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4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 4월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5%, 전달보다 4.7%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33.7%), 기계장비(29.8%), 자동차(5.9%) 등에서 증가하

고 식료품(-3.8%), 비금속광물(-3.3%), 1차금속(-0.3%) 등에서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같은 달보다 9.5%, 전달보다 2.8% 각각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각각 4.1%와 5.4% 늘어났다.

4월 광주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96.0(2010년=100)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7%, 전달보다 11.8% 각각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4월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5.0%), 기계장비(29.5%),

비금속광물(4.5%) 등에서 늘었으나 석유제제(-20.3%), 기타운송장비(-19.2%) 등에서 줄면서 전년 같은 달보다 6.7%, 전달보다 3.8% 각각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4%, 전달보다 1.0% 감소했으며, 재고는 전년 같은 달보다 2.1% 늘고 전달보다 5.6% 줄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88.8로 전년 같은 달보다 3.7%, 전달보다 10.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은행 여수신 금리 사상 최저 하락

4월 예금 2.75%, 대출 4.75%…예대마진은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 4월에 이미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모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4월 중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 은행의 저축상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보다 평균 0.12%포인트 떨어진 연 2.75%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전 최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5월의 2.84%였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86%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이중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정기예금에서는 연 4%대를 적용 받는 신규 가입자가 아예 사라졌고 2~3%미만이 전체 가입액의 84.5%

를, 3~4%미만이 14.0%를 각각 차지했다. 0.02%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정기예금도 1.5%였다.

대출 금리는 4.73%로, 종전 역대 최저인 3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면서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86%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이중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의 진폭이 큰 소액 가계대출은 6.33%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잔액 기준 총수신 금리는 2.48%로 0.08%포인트 떨어졌고 총대출 금리는 5.11%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의 차이는 2.63%포인트다. 이는 전월보다는 0.0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수신 금리보다 하락폭이 작았던 데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와 대출금리도 모두 떨어졌다.

/연합뉴스